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지혜의 순길

화엄사, 어머니의 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화엄사와 화엄신앙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 스님이신 연기조사께서 창건하셨습니다. 이후 백제 법왕(599)때 3천여 명의



〈화엄석경〉

스님들이 계시면서 이른 시기부터 화엄사상을 한반도에 꽃피웠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문무왕 17년(677)에는 화엄종의 고승이었던 의상스님이 화엄사에 와서 『화엄경』을 돌에 새긴 〈화엄석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석경은 각황전 둘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조각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사자 삼층석탑과 그 앞에 있는 석등도 아름다운 유래가 있습니다. 석등 속 스님은 연기조사이시고, 석등 속 여인은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탑과 석등이 있는 언덕을 ‘효대(孝臺)’라 부르고 있습니다.

화엄사상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 등의 고승들에 의해 신라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화엄교학을 중심으로 융성함을 더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화엄은 중심교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화엄사상의 핵심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一切唯心造)”라는 말씀으로 대표되며, 『화엄경』 안에는 서로 대립하고 항쟁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순례하는 의미

부처님의 수행은 안락한 집을 떠나 길을 걸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 45년간 길에서 탁발하셨으며, 마지막 열반마저 길 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길에서 길을 찾는 수행은 유행(遊行) 또는 순례(巡禮)라고도 하며, 잡스런 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 오롯이 걸음과 함께 하는 수행법입니다. 순례는 정해진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살펴보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걸음걸음마다 마음을 돌아보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집착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등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버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다닙니다.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한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 수행법은 집착을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며, 최상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걸고 걸어도 그대 세상 끝에 이를 수 없으니
그대 거기 이를 수 없기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
그러나 지혜가 깊고 세상을 바로 보는 이는
진실로 그 끝을 보도다.

순례 발원문

우러러 아뢰옵나니,
온 세계 항상 계신 다함없는 삼보시여
자비로 지혜 광명 드리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닦은 바다 같은 공덕 중생계에 회향하오니
모두 원만하여지이다.^(3배)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는 지혜의 숲길을 순례합니다.
저희의 순례가 부처님과 가르침에 한발 더 다가서는
성스럽게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안전하고 건강한 순례가 되도록 보살펴주시옵고,
순례가 끝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한량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에 노닐며 깨달음의 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세계 불보살님 만나 뵈고
모든 부처님 크신 광명 입어
무량한 죄업 소멸되고 한량없는 큰 지혜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단번에 이루어
널리 법계 모든 중생 제도하여
부처님 크신 은혜 갚기 원하오며
세상에 날 때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일체지를 원만히 이루어 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순례하는 방법

◆ 순례를 시작하면서

1. 불보살님을 향해 합장하고 삼귀의를 합니다.

-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 발원

- 순례발원문 참조

3. 정근

- 각자가 정한 시간 동안 석가모니불 명호를 부릅니다.

4. 걸으면서 내려놓아야 할 생각을 정리합니다.

◆ 순례를 마치면서

1. 걸으면서 생각을 내려놓았는지 성찰합니다.

2. 불보살님을 향해 합장하고 사홍서원을 합니다.

-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지혜의 숲길 소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새로운 신행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혜의 숲길 순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소개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욱 손쉽게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순례할 때 유의사항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쓰레기는 가지고 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순례길 원만회향을
확인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智異山大華嚴寺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지리산 화엄사

문의 : 061-783-7600 | 홈페이지 : hwaeomsa.idanah.net

